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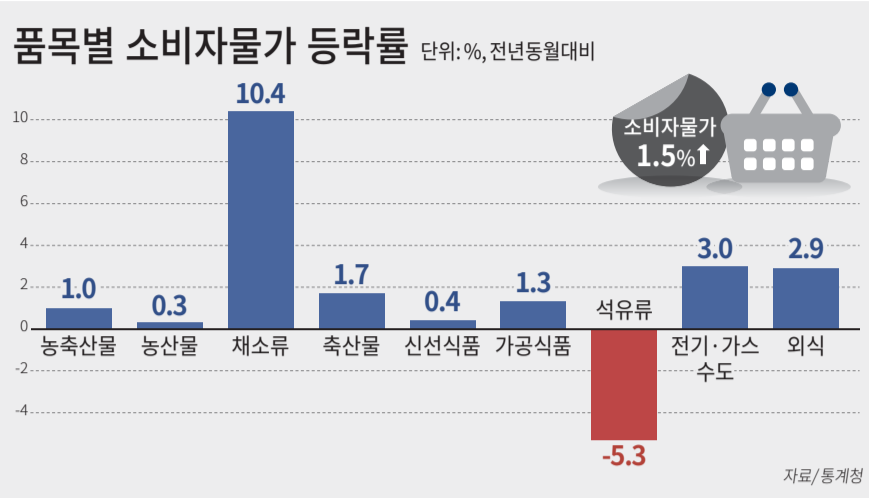
물가 3개월째 1%대... 채소류 10% 급등 '체감물가와 괴리'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석유류 가격 하락에 물가 0.22%p ↓
 채소류는 3개월째 10%대 상승폭
 1~11월 누계 상승률 2.3% 집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채소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실제 구매 시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9월(+1.6%)과 10월(+1.3%)에 이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3.1%)에 3%대에 달한 뒤 4월(2.9%) 2%대로 내려섰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2%대를 유지한 뒤 9월부터는 1%대로 안



정화한 것이다.

국제유가의 내림세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이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둔 시점에 채소류 물가는 10% 넘게 올랐다.

지난달 채소류(+10.4%)는 0.15%포인트(p) 수준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11.5%)과 10월(15.6%)에

이어 3개월째 10%대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만, 기상여건 개선 및 출하량 확대 등으로 오름폭은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뛰었다. 공미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

던 영향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도시가스(7.0%), 지역 난방비(9.8%) 상승도로(3.1%)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3.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1% 올랐다. 이 중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반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5.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낮추는 효과를 냈다. 신선식품도 0.4% 오르는 데 그치며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6%로 석달 연속 1%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공 심의관은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과실류와 석유류 가격이 내리는 등 전

반적인 흐름은 지난달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석유류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물가 둔화 흐름에도 물가 수준 자체는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 대비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美, 對中 첨단반도체...서 계속

고양시청역~새절역, 20분대로 확 빨라진다

국토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 목표, 사업비 1.7조 투입
 지역 만성적 교통혼잡 완화 기대감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양은평선'이 만들어진다. 대중교통으로 50분은 가야했던 고양시청역~새절역 구간이 20분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목표연도 개통을 지키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됐지만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20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 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D램 1위 기업 2세대 HBM 양산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격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HBM을 분석, 분해해 자체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D램 1위 기업인 C XMT(창신메모리)가 이미 2세대 HBM 라인을 구축하고 양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DDR4를 저가로 공급하며 전체 D램 가격을 흔들려 놓은 상황에서 고급형 시장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된 대구경북이 만드는 대구경북특별시!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행정통합 왜 해야 하나요?

대구경북 분리 이후 40여년 지난 지금, 수도권 인구는 2배로 ↑, 대구경북 인구는 오히려 감소 ↓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해야 합니다."

구분	1980년	변화	2024년
대한민국	3,744만명	37% ↑	5,127만명
수도권	1,330만명	96% ↑	2,605만명
대구경북	495만명	1% ↓	490만명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대구경북의 규모와 경쟁력 강화

- ◎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 ◎ 대구경북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 통합신공항, 물문제 해결 등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교통망 확대

1. 대구경북 순환 철도전철망
2.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4. 동서3축 고속도로 (부주~성주~대구)
5. 남북9축 고속도로 (영천~청송~영양~봉화~양구)

권한과 재정증가로 품으로 온 주민생활

- ◎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권한이양과 특례로 자치권이 강화됩니다.
- ◎ 각종 재정·세제 이양으로 지방재정이 약 2조원 증가합니다.
- ◎ 산림, 하천 관리 권한 이양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신속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